

日本石油産業의 구조변화와 경영환경

日本석유업계는 오랜동안 현안문제가 되었던 石油産業의 집약화가 작년에 실현됨으로써 出光興産사를 제외한 주요 석유회사가 업무제휴나 합병을 통하여 금년부터 7개 그룹 체제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밖에 消費地精製主義도 국내외의 압력 때문에 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석유업계에는 새로운 환경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변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 日本석유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I. 석유파동 이후의 구조 변혁

1. 수요감소와 수요구조의 변화

우선 두번에 걸친 석유파동이 석유업계에 끼친 영향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石油수요의 감퇴와 수요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경영실적의 저조와 기업체질의 商社化이다. 즉 13배나 오른 石油가격은 결과적으로 경기침체, 代替에너지의 등장, 에너지절약의 진전을 가져와 석유제품 수요는 73년도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83년도에는 절정기의 8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앞으로도 거의 현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石油가격의 등귀로 전력업계를 비롯한 대 수요업체들은 대체에너지를 지향, 종래의 주력제품이었던 重油의존도는 크게 낮아진 반면 휘발유, 등유, 경유 등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질류분의 상대적인 점유율이 신장, 이른바 수요의 輕質化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계의 중유 이탈현상은 정

착되고 있으며, 이 경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경영실적의 저조와 기업구조의 변화

대폭적인 수요감소는 설비과잉 상태와 가동률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고정비 부담의 증대를 초래했다. 아울러 등귀한 원유대의 가격전가도 충분히 할 수 없어 석유업계는 만성적인 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原油가격의 등귀는 수요 감퇴뿐만 아니라, 석유기업의 체질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우선 수익면에서는 총 코스트에서 차지하는 原油 코스트의 비중이 85-90%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재무면에서도 가격상승으로 原油를 중심으로 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팽창, 자산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어 이른바 商社的인 수지·재무 구조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原油코스트의 삭감이 기업수익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값싼 原油의 조달, 원유수입 금리를 비롯한 금융 비용 절감, 환율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원유조달원의 분산, 경질화 설비의 증강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당국도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조성책을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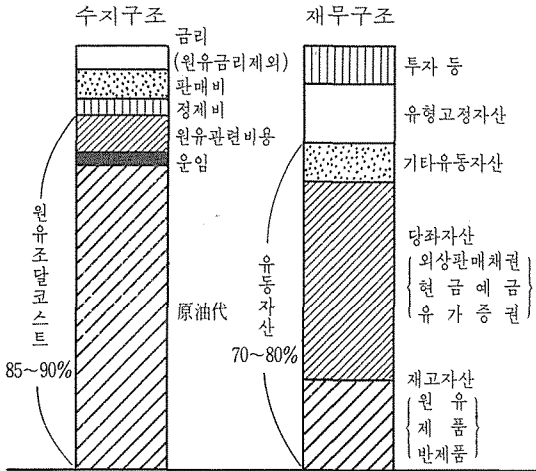
II. 石油業界의 최근 동향

1. 업계 안정화에 노력

석유파동에 의한 환경의 격변과 기업구조의 변혁에 대응하여 업계 및 행정당국은 그 동안 여러가지

〈그림-1〉 최근 石油産業의 수지구조와 재무구조

〈表-1〉 84년의 주요 사항



의 의	主 要 事 項
○石油業界의 안정화에 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石油業界의 집약화 실현(7개 판매그룹 체제) 2. 기업의 재무전략 전면(자산압축, 수입금융 감축) 3. 통산성「유통비전 연구회」발족(유통질서 회복기대) 4. 석유기업의 차별화, 고부가가치화 전략 강화(주유소의 VAN, 탄소섬유 등) 5. 외환 선물계약 실수원칙 철폐, 취득일 환율 평가법 채용 자유화
○환경의호전 ○새로운문제의 발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原油價格 하락, 재인하기대 높아 (스파트가격 하락, 유종간 價格差 축소) 2. 石油製品 내수 5년만에 증가
○製品수입문제 의 대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산성, 메탈자동차 리스회사 설립구상 2. 라이온즈석유, 휘발유 수입 강행 시도 3. 석유심의회, 석유정책의 완화 및 국제화 제언(석유업법의 탄력적인 운용, 제품수입의 점진적 완화)

대응책을 밝혀왔으나, 그중에서도 84년은 앞으로 석유업계를 크게 전환시키는 한해가 되었다.

우선 84년에 있었던 최대의 사건은 「共同石油」 설립(1965년) 이후 20년만에 판매회사(元売會社)의 집약화가 실현되어 13개사에서 7개 그룹 체제로 이행되었다는 것이다. 석유파동 이전부터 日本의 석유산업은 과열경쟁 체질을 갖고 있었으며, 석유파동후 수익수준은 낮아지기 시작했다. 더우기 81년에 円貨 약세가 겹쳐 증대한 原油 코스트의 가격전가도 하지 못하고 사상최악의 결산을 맞보아야만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계구조에 위기감을 느낀 각사는 83년 10월 과잉설비처리(97만B/D)에 이어 최후의 대책으로서 협업 합리화와 판매질서의 회복, 과열경쟁의 시정을 겨냥하여 합병·업무 제휴를 통해 집약화를 실현하게 되었다. 이 집약화의 첫번째 목적은 82년 이후 각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대폭적인 감량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즉, 原油 조달력의 강화는 물론이고 팽창한 자산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줄이려고 각사는 81년부터 83년까지 적극적인 재무전략을 전개하였다. 〈그림-3〉과 같이, 자산면에서 ▲외상판매기간 단축 ▲그룹 금융의 일원화와 지점자금의 본사 집중화를 통한 체류자금의 압축, ▲석유비축 규모수정(100 → 90일), 또한 이로 인해 생기는 잉여자금을 이용하여 채무면에서의 高金利 유전스의 단축(113일→76일)을 중심으로 한 차입금의 삭감이 그것이다. 이 결

과 지불금리가 대폭 절감되어 기업수익을 개선하고, 금리수준의 저하에 힘입은 바도 있으나, 금융비용은 81년도부터 83년도에 걸쳐 실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감량 경영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타사와 협업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집약화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日本石油와 미쯔비시석유의 제휴 잇점은 약 100억円).

두번째 목적은 수익향상의 최대 포인트인 코스트의 가격 전가력 회복에 대한 강한 결의이다. 실제로 日本石油와 미쯔비시석유의 합계 판매 점유율은 25%를 넘으며, 시장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단, 제휴와 합병의 결실은 앞으로 각사의 노력여하에 달려있을 것이다.

또한 작년에 通産省이 「석유유통비전 연구회」를 설치, 석유제품 판매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특별할 만한 것이다. 이밖에 각 회사에서 주유소를 이용한 VAN(부가가치 통신망)설치 구상과 「피치」계 탄소섬유의 개발 등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어 경영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향한 각사의 움직임은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대응책 외에도 83년 4월 부터 외화 채권 채무의 취득일 환율평가법 채용이 자유화 되어 석유업계 구조개선을 위한 일련의 대책은 거의 마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 대책이 어떻게 실효를 거둘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다.

2. 환경호전과 새로운 문제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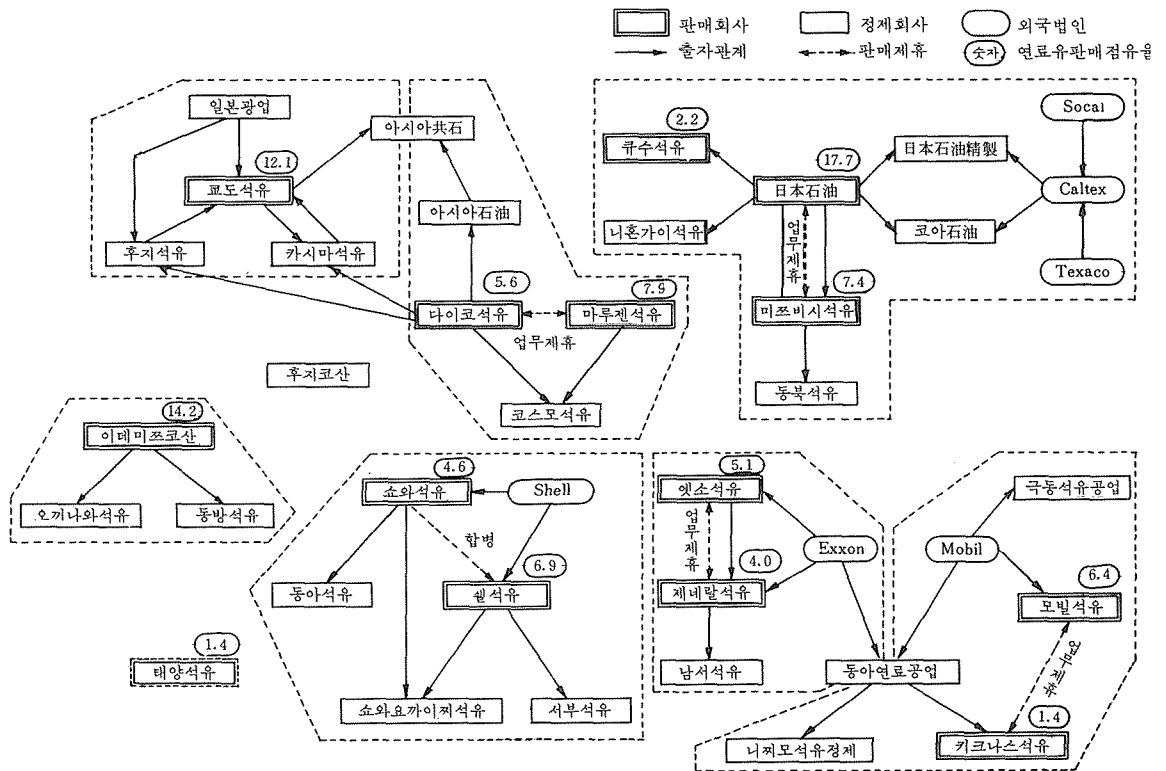
국내 석유기업의 집약화에 이어 84년도의 또 다른 외부화제는 OPEC(石油輸出国機構)의 상대적 지위저하에 의한 原油시황의 침체이다. 특히 스파트 가격은 82년 이후 GSP를 크게 밀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란-이라크전쟁의 격화, 페르시아만에서의 유조선공격이라는 사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가격인상이 있을 뿐 대략 약세를 보이고 있다. OPEC가 수급균형을 목적으로 하루 생산 상한선을 150만배럴 삭감한 것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금년 1월에는 유종간 가격차의 수정을 내세워 아라비안 라이트의 GSP를 1달러 인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시황은 별 변동이 없으며, 일부에서는 앞으로 다시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원유시황이 저조한 가운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유종간 가격차의 축소이다. 즉, 세계적으로 2차 정제설비가 증강되면서 값싼 중질유의 인기가 높아지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비싼 경질원유는 인기가 떨어져서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原油가격의 하락과 종래의 상식을 넘어선 유종간 가격차의 파행현상은 석유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즉, 석유위기 이후 각사의 원유전략은 값싼 장기계약 원유를 확보하는데 있었으며, 한편 설비면에서는 수요의 경질화와 조달원유의 重質化에 대응하여 분해장치등, 2차 설비투자에 주력하는데 있었다. 중질원유는 비교적 값이 싸으며 거액의 자본을 투자해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

(그림 - 2) 日本석유업계의 자본관계도 (판매·정제 34개사)

(單位: %)



(表 - 2) 최근 3년간 석유회사의 경영실적

(單位：억圓)

내역	연도	81	82	83	84상반기
매출이익		14,535	14,602	11,493	5,952
일반판매비	▲	7,155	7,461	7,640	3,698
환차손익	▲	3,655	96	1,104	357
금리부담*	▲	8,054	6,239	4,336	1,390
기타		528	306	231	52
경상이익	▲	3,801	1,304	852	59

註：1) *수취이자-지불이자
2) 22개사 집계 수치

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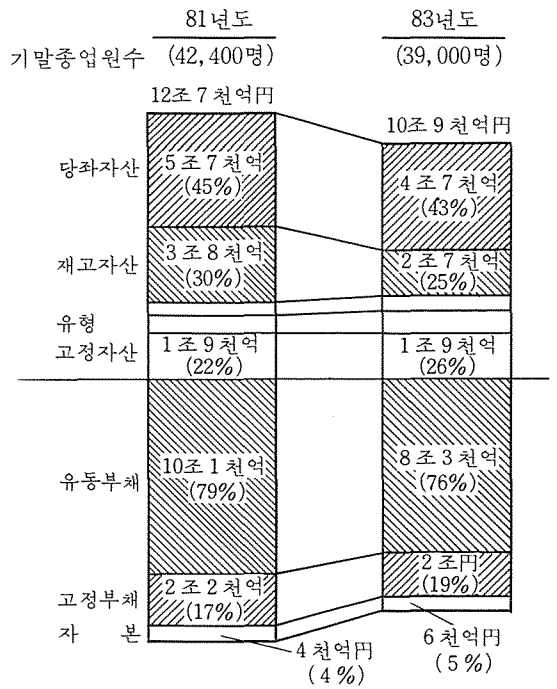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의 원유정제는 유종간 가격차가 크게 좁아지면서 중질유 분해설비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득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결과 설비투자를 하지 않은 정제회사가 값싼 경질유를 처리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 반해, 2차 설비를 갖춘 정제회사는 자본비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수익격차가 생겨났다.

결국, 유종간 가격차가 배럴당 4 달러에서 2 달러로 축소된다면 연간 원유처리량 500만kl 정도의 중견 정제회사에서 연간 150억! 전후의 이익차가 생기게 되므로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이런 환경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할 수 없지만, 세계적인 2차 설비 파잉상태와 원유공급과잉 사태가 계속되는 한 이 격차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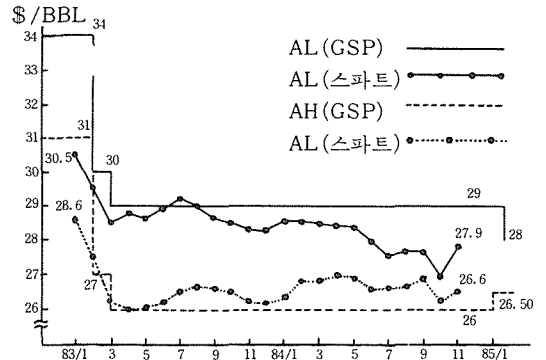
3. 製品수입문제의 대두

84년에는 석유제품수입에 관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첫째, 라이온즈 石油가 싱가포르에서 휘발유 수입을 강행하려한 휘발유 수입 자유화 문제이며, 둘째는 운수성이 메탄올 자동차 리스회사 설립을 위해 예산을 요구한 「메탄올 자동차 조기도입 소동」이다. 소비지 정세주의의 완화는 6월 석유심의회에서 「점진적」이라는 주를 달아 내세운 방침이며, B-C油에 대해 「점진적」인 수입확대가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한 채산유종인 휘발유의 수입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화, 자유화, 안정공급이라

(그림 - 3) 최근 석유회사(22사)의 감량 경영상황



(그림 - 4) 아라비안 라이트(AL) 및 아라비안 헤비(AH)의 GSP·스파트 價格推移



는 여론뿐만 아니라, 업계구조를 일변시킬지도 모를 대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메탄올 자동차용 연료로서의 사용도 그 경제성이나 안정성면에서 분명하지 않고 연산품 생산을 피할 수 없는 석유정제업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많다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론으로서 제품무역이 확대되고 산유국

의 하류부문 진출이 현실화되고 있는때에 일본만이 독립시장을 고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석유업계가 준공공기업으로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든 것은 국제적인 영향을 배제하는 극진한 보호를 말하며, 업계가 이에 안주하여 구미 메이저와 같이 힘을 기르는데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인식을 피할 수 없다. 강력한 미국의 메이저들도 도태되는 이런 시기에 집약화를 계기로 새로운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는 석유파동후 10년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으며, 석유업계는 새로운 대응방안을 추구해야만 한다. 석

유업계는 참된 의미에서 안정적인면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메이저의 생존전략과 같이 투자이익률이 높은 상류부문으로의 진출 ▲원유·석유제품 무역업자로서의 실력양성과 이를 위한 정보력, 기획력의 강화, ▲대체에너지, 신연료 등에도 참가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등이 과제가 될 것이다.

石油産業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에너지 공급산업이다. 이 불투명한 시기를 극복하여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기반을 확립해 갈 것을 기대한다. * <雙龍·주간석유에너지정보>

□ 隨 想 □

如如自然

琴 基 燦

(極東石油 製品開發課長)

지난 가을 도시의 소음공해를 피해 둔촌동(숨을 “둔”자에 마을 “촌”자)으로 이사를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이고 교외라 그런지 아니면 마을 이름 자체가 둔촌동이라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하기에 큰 불편없이 오히려 아침안개의 상쾌함, 지저귀는 이름모를 산새소리, 개구리의 합창소리, 적절한 산책코스 가진 푸른산과 약수터, 테니스코트-무엇보다도 내마음을 흠족케하는 것은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조용하고 아늑한 가운데 맑고 싱그러운 공기가 가슴을 탁티워 놓음이야 어디에 비할손가? 모든 생동하는 것들이 자연에서 태어난만큼 자연을 떠나서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으로부터의 벗어남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고뇌는 그만큼 커져가는 것이 아닐까? 삶의 진정한 모습도 자연속에서 발견해야 그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이 쉽게 밝혀지듯이 인간은 결국 자연스러움속에서 그 인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내자신의 생활모습과 수양생활의 기준도 흔히 범하기 쉬운 내 욕심과 아집을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레 흘러가는 마음의 흐름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은 곧 이웃의 모습임을 발견할 때 이웃사랑이 내사랑이며 내사랑 또한 이웃과 겨레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제 완전한 봄기운을 넘어서 한낮에는 초여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생활에 쫓기다 보면 어느덧 이봄도 지나가고 또 다시 봄·봄·봄……

커다란 자연섭리의 굴레속에서 나의 시공간적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나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 뿐이리라.

열여섯힌 창문밖에서 여전히 푸르른 초목들이 5월의 햇살을 흠뻑 빨아들이고 있는 토요일 오후이다.

그저 “여여자연(如如自然)” 하다고나 할까?